

야곱, 뽀엘에서 엘뽀엘로!(도약5)

본문: 창 35:1-7

진정한 회복과 도약,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만약 인간이 주도한다면 이는 독특하고 유일한 기독교의 신앙, 즉 계시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이비 또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 불과합니다.

본문 3절 전반에서 야곱은 인생의 절망 중에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뽀엘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주도하심이 선행되었습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뽀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과 주도하에 우리들이 맡은 할 일을 수행할 때, 회복과 도약, 부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1.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3 우리가 일어나 뽀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사실 야곱이 이같이 “뽀엘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그에게는 세겜 땅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막친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국한 은혜를 기념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창 33:18-20).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을 하란 땅에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31:13). 그럼에도 야곱은 출생지이며 가족들이 거주하는 고향 브엘세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한 후에 뽀엘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세일로 함께 가자는 형 에서의 제안에도 거짓으로 응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에서가 후에 마음을 바꿀 것을 우려해 숙곳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와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단을 쌓고 거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은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자 야곱은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물론 그가 세겜을 떠나야만 하는 당혹스런 사건이 발생했었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에서 그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이 거주민들에게 보

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피해 피신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대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결에서 하나님이 패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심지어 인류의 가장 강력했던 5대 제국(애굽, 앗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아둔한 인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던,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던, 심적으로 다운되고 절망되던,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심령이 피폐해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며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괜히 버티다 갈등과 고뇌만 더 경험하지 말고, 더 체력이 소모되고 세월만 덧없이 흘러가게 하지 말고, 일찌감치 두손들고 하나님께로 순복하며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2. 다음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주도하에 회복과 도약을 맞이하려면,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정결케 하십시오

본문 2절 후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같은 야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들이 정결케 했습니다.

본문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은 처음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며 옷을 빨게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1 예비하여 제 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 삼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출 19:10-11).

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히 12:14).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자신을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술과 담배, 스모크샷(마리화나), 마약 등등... 그러나 이것들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타협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향락에 젖어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고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인들은 때때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그릇일 지라도, 깨끗하면 쓰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2:20-21).

우리 모두 보다 새롭게 회복되고 도약하기 위해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신앙인”이란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생활은 물론 늘 자신을 영육심간 정결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3. 마지막으로 회복과 도약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6-7절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벳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자신의 회복과 도약, 나아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벳엘”에서 “엘벳엘”로 도약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 신앙인임에도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